

일·가정양립의 최근 동향연구 : 국내 가족과 관련된 학회지를 중심으로

A Study of Recent Trends in Work-Family Balance
: Focusing o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Domestic Families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이예운*
우석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승미**
우석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 박경순

Dept. of children and social welfare Woosuk University
Ph.D. course Lee Ye woon
Dept. of children and social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Lee seungmie
Dept. of children and social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Park, Kyung-Soon

〈목 차〉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초록〉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기별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2020년 기간의 논문 수(37편)가 본 연구 분석논문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방법은 설문조사(43%), 2차 자료 분석(30.1%), 심층면접(14%), 문헌연구(7.5%) 등이 사용되어 양적방법의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다룬 연구(6.4%), 그리고 현상 파악을 위해 기혼여성(26.9%), 기혼 남성·여성(20.4%)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6년 이후에는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16.1%)를 대상으로 한 연구, 미혼(5.4%)을 대상으로 한 연구, 특정직업군의 근로자(9.7%)를 대상으로 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넷째, 연구내용은 내용의 중복값을 허용한 114편의 전체 분석대상 논문 중 정책연구 24편(21.0%), 현상분석 연구 90편(78.9%)으로 현상분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일·가정양립, 일·가정갈등, 일·생활균형, 동향연구

*주저자: 이예운(lywsang@naver.com), <https://orcid.org/0000-0001-8473-2863>

**교신저자: 이승미(smlee21@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3-1222-8435>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research trend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For this purpose, research period, methods subjects,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percentages for paper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published from 2000 to 2022 in academic journals focusing on domestic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apers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00.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apers(37) for 2016-2020 accounts for 39.8% of the papers analyzed in this study. Second, surveys(43%), secondary data analyses(30.1%), in-depth interviews(14%), and literature research(7.5%)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indicating the high prevalence of quantitative methods. Third, in the early 2000s, studies addressed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policies(6.4%) and focused on married women(26.9%) and married men and women(20.4%) to understand. Since 2016,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exploring worker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16.1%), unmarried workers(5.4%), and workers in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9.7%). Fourth, in terms of research content, there were 24 policy studies(21.0%) and 90 phenomenon analysis studies(78.9%) out of 114 total analysis subject papers, indicating an overlain content and high proportion of phenomenon analysis.

Key words: work-family balance, work-family conflict, work-life balance

I. 서론

일·가정양립이란 일과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두 영역의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는 것이다. Grzywacz & Carlson(2007)은 개인의 역할기대와 역할결과의 정도에 따라 일·가정양립이 인식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이라는 용어는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작되었다. 기본계획은 현재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일·가정양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2006), 유산·사산휴가(2006), 가족친화기업 인증제(2008), 배우자 출산휴가(2008), 육아휴직급여 정률제(20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12), 아빠의 달 시행(2014),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19), 자녀 돌봄 휴가(2019) 등이 있다. 200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7여년 간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 제도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자는 통계청(2019) '일·가정양립지표' 결과 22,297명으로 전체 휴직자수 중 21.2%에 달한다. 고용노동부(2022) '2021년 일·가정양립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채용, 인사관리, 승진 등도 일·가정양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일·가정양립제도는 특정대상만을 위한 지원

이 아닌 일과 삶, 일과 가정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관련 학술논문의 시기별 연구 동향 분석을 토대로 일·가정양립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정민선·서진희·최연실, 2022; 최빛내·최우정·최연실, 2018)을 참고하여, 분석방법의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며,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국내 학술논문 93편이다. 연구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사이트를 활용하여 '일·가정양립', '일·가정갈등', '일·생활균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가족 전공, 여성학 전공, 법 전공, 사회복지 전공과 관련된 학회지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학술논문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학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일·가정양립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학회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일·가정양립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내용(정책, 현상)의 비교분석을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현상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학회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에 따른 연구 경향을 비교분석하기 보다는 유사한 관점에 기반한 관련 연구들의 동향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회로 국내 가족 전공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가정과삶의질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대한가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를 선정하였다.

검색된 주제어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43편, 일·가정갈등 53편, 일·생활균형 19편이다. 이중 중복 검색된 논문 13편을 제외하고 연구시기 이전에 출간된 2편(박성욱·김성훈, 1995; 조희금, 1999)의 학술논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낮은 학술논문 9편이 제외되었다. 제외된 학술논문은 ‘농촌노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집단치료’와 같이 일·가정양립 주제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정 대상과 관련성이 높은 학술논문이다. 최종 선정된 연구논문은 총 93편이며, 학회별 논문현황은 <표 1>과 같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시기별 동향 분석을 통해 일·가정양립 연구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기준을 제시한다(<표 2> 참조).

1) 연구시기

연구시기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2022년까지이며, 5년을 기본단위로 분석하였다. 동향연구와 관련된 선행논문(김정숙·이은형, 2019)에 의하면 20년 내외의 연구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3년, 4년, 5년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시기별 정책의 흐름과 연구의 경향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시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2006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기와도 일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21년-2022년으로 구분하였다.

<표 1> 학회별 논문 현황

			(n=93)		
학회	빈도	비율	학회	빈도	비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4	36.6	대한가정학회	10	10.7
가정과삶의질학회	21	22.6	한국가족관계학회	3	3.2
한국가족학회	12	12.9	한국가족치료학회	1	1.1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2	12.9			

<표 2> 연구 분석 기준 개요

연도시기	2000년 ~ 2022년	
연구방법	문헌연구	문헌고찰
	양적연구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
	질적연구	심층면접, 사례연구,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인터뷰
	혼합연구	연구방법 2개 이상
연구대상	성별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남성·여성 근로자
	결혼여부	기혼근로자, 미혼근로자,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
	기타	정책, 특정직업군 근로자, 현상전략
연구내용	정책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목적의 정책
	현상	일·가정양립 : 일(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일·가정갈등 : 일(직장)과 가정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 일·생활균형 :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양적연구는 조사연구인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으로 분류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은 통계청자료, 패널자료 등 기존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질적연구는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심층면접, 사례연구, 내용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분류하였다.

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크게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였다. 성별에 따른 분류로는 남성·여성 모두,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고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 미혼,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로 하위분류하였다. 이외 성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족친화적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에 관한 연구)와 특정 직업이나 직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자녀 건강가정사의 일·가족양립경험에 관한 연구, IT분야 여성중간 관리자의 일·가정양립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와 같은 경우 기타(정책, 특정직업군 근로자, 현상전략)로 분류하였다.

4)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술논문의 주요 주제어와 연구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주제별 유목화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범주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내용의 상위범주는 정책과 현상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정책관련 분류는 일·가정양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정책과 가족친화적인 기업정책으로 구분한다(정영금, 2008).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은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지원체계와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적합성연구'와 같이 정책의 평가, 정책 비교분석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은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 성과 및 사후지원효과-기업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와 같이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이용 및 활성화, 가족친화경영의 사례 및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상분류는 일·가정양립, 일·가정갈등, 일·생활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일·가정양립은 '일·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과 일·가정양립양상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인식, 태도, 환경, 효과, 자원 등)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일·가정갈등은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갈등 인식'과 같이 일과 가정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생활균형은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지지, 직장 지지 및 일·가족 전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영리기관종사자의 일·생활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일·생활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연구내용은 중복분류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정책과 현상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내용의 하위분류는 '정책;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정책;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정책', '현상; 일·가정양립', '현상; 일·가정갈등', '현상; 일·생활균형'이며, '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에 관한연구'와 같이 정책과 현상 모두를 포함하는 학술논문의 경우 연구내용의 중복분류를 허용하였다. 중복분류된 연구내용의 수를 포함하여 총 114개의 연구내용 분류를 색출하였다.

일·가정양립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에 따른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의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의 동향은 어떠한가?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연구시기,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 별 정보를 입력하고 Excel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논문별 연구 시기는 입력된 연도정보에 따라 필터기능을 활용하여 5년 주기로 코딩이 가능하도록 분류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동일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입력된 연구대상을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중복분류를 허용하였으며, 논문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족학전공 교수 2인이 공동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복분류된 학술논문의 내용분류 확인 이후 분석 결과가 상이한 경우 분석기준을 다시 선정하는 재협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협의된 분석기준에 따라 코딩된 자료는 연구문제 항목별 Excel 프로그램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시기별 연구논문의 분포 경향

연구시기별 연구논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0-2005년 4편(4.3%), 2006-2010년 13편(14.0%), 2011-2015년 23편(24.7%), 2016-2020년 37편(39.8%), 2021-2022년 16편(17.2%)이다.

연구시기를 통해 경향성을 살펴보면, (1)2000-2005년에는

가족친화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책도입 시기로서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근로자의 복지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정영금, 2002; 정영금, 2004; 김영선·옥선화, 2005; 정영금, 2005). (2)2006-2010년에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논문의 경향을 보면 논문의 경향을 보면 양성평등 관점에 근거한 연구(이슬기·전귀연·김수경, 2007; 한지숙·유계숙, 2007; 마경희, 200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일·가정양립개발 프로그램 연구(송혜림, 2010)가 있으며,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이후 대안 및 평가에 관한 연구(손주영, 2008; 정영금, 2008; 정영금·김희형, 2009)도 나타났다. (3)2011-2015년에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시기로,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환경 속에서 이 시기에는 일·가정양립 실태(송혜림·유아랑, 2013), 취업모의 어려움(조수진·이기영, 2011; 양소남, 2011; 김경화, 2013; 김은정, 2013; 송혜림·유아랑, 2013; 손서희·이재림, 2014), 가족친화사업 시행(정영금 외, 2013)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히 나타났다. (4)2016-2020년에는 만혼의 증가로 인한 출산저하 및 인구절벽,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저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지 않도록 지원하며,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정책의 범주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환경 속에서 미혼대상자의 결혼인식(박주희, 2017; 노유영·임춘희, 2017; 박하영 외, 2020), 기혼남성의 어려움(김유경·구혜령, 2016a; 김유경·구혜령, 2016b; 김유리·김은정, 2016; 기은광, 2016; 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b; 김재희·이희선·박성혜, 2018; 최새은·정은희·최슬기, 2019),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유재언, 2016; 서중수 외, 2015; 엄세원·이재림, 2018) 등 기존의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주제가 나타나며 연구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5)2021-2022년에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며 기존 출산장려정책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되었다. 1인 가구(권안나, 2021; 송혜림·강은주, 2021)의 여가 및 일·생활균형에 관한 연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갈등 및 경험(김규량, 2021; 양은선·김연하, 2021; 방지원 외, 2022; 최보윤 외, 2022), 여성관리자의 갈등(강하라, 2021; 정영희·김현주, 2022) 등이 있다.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연구 시기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시기별 연구 흐름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점차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증가되어 왔으며, 연구의 대상과 내용도 다양화된 특성이 나타난다.

<표 3> 연도 시기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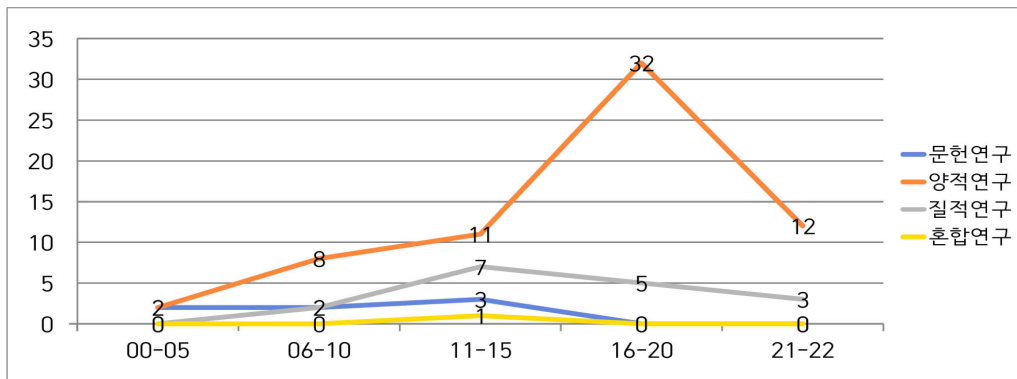
(단위: 93편, 100%)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2
논문수	4	13	23	37	16
백분율	4.3%	14.0%	24.7%	39.8%	17.2%

2. 연구시기별 연구방법의 분포 경향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며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2000-2005년에는 문헌연구 2편, 양적연구 중 설문조사방법 활용한 연구 2편으로 구분된다. (2)2006년-2010년에는 문헌연구 2편, 양적연구 9편(설문조사 5편, 2차 자료 분석 4편), 질적연구 2편(관찰연구 1편, 내용분석 1편)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경향은 2000년대 초반에 국의 일·가정양립 정책 검토를 토대로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시기에는 정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3)2011년-2015년에는 문헌연구 3편, 양적연구 12편(설문조사 6편, 2차 자료 분석 6편), 질적연구 중 심층면접 7편, 혼합연구 1편이 활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 통계자료(여성패널자료, 통계청 시간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가 증가한 추이를 보이며, 특정 대상별 일·가정양립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방법의 활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4)2016-2020년에는 양적연구 32편(설문조사 21편, 2차 자료 분석 11편), 질적연구 5편(심층면접 3편, 사례연구 1편, 포커스그룹 인터뷰 1편)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5)2021-2022년에는 양적연구 13편(설문조사 6편, 2차 자료 분석 7편), 질적연구 중 심층면접 3편이 활용되었다.

2000년~2022년까지 연구논문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의 경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에서 양적연구 68편(설문조사 40편, 2차 자료 분석 28편)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 현상과 실태분석 연구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시기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책도입, 정책비교, 정책분석 등과 관련하여 문헌연구도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부터 실제 연구대상의 일·가정양립 경험,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획, 가족친화센터 담당자들의 사업평가 등 보다 심층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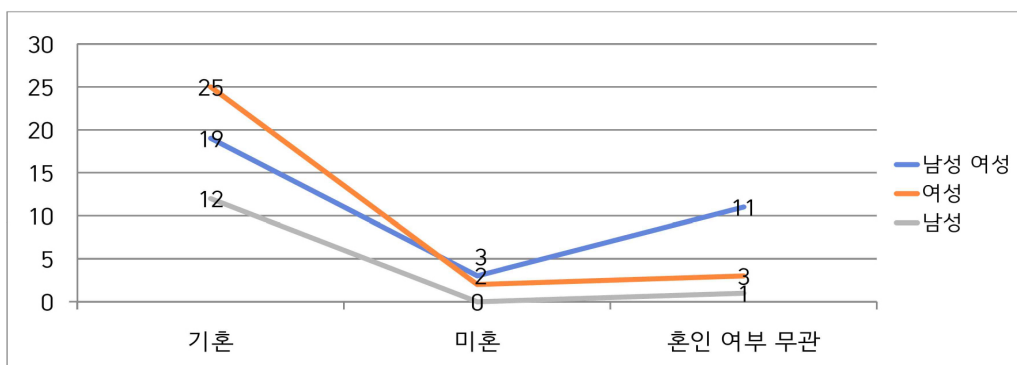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에 따른 현황

3. 연구시기별 연구대상의 분포 경향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000-2005년 연구대상은 정책 2편, 기혼여성 1편, 특정직업군 1편이다. 가족친화정책 도입의 필요성(정영금, 2002; 정영금, 2004)을 통해 적용분야와 방안을 다루는 연구와 일·가정갈등 관련 가족기업 종사자(김영선·옥선화, 2005), 기혼취업여성(정영금, 2005)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2)2006-2010년에는 기혼여성 6편, 기혼남성·여성 2편, 정책 2편, 남성·여성 2편, 기혼남성 1편이다. 이 시기에는 ‘맞벌이가구 젠더체제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이완정, 2009; 성혜영, 2010)’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 대상의 연구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지향성이 일·가족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기혼 남성·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가정 양립 실패와 사회적 지원의 방향성 비교: 가족 친화적이었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김성희, 2009)’와 같이 정책 간 비교분석 연구가 나타났으며, 기혼남성 우편집배직 공무원의 생활만족도(홍성남·성미애, 2010) 1편이 나타났다. (3)2011년-2015년에는 기혼여성 6편, 기혼남성·여성 4편, 기

혼남성 4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여성근로자 3편, 정책 2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남성·여성 1편, 미혼남성·여성 1편, 특정직업군 1편, 현상전략 1편이다. 2011년대 이후 기혼근로자 대상의 연구 비중이 13편(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 맞벌이 부부(김소영·김선미·이기영, 2011; 채화영·이기영, 2013; 김주희·이기영, 2015; 문영주, 2013), 기혼남성(송혜림, 2012; 채화영·이기영, 2013; 윤소영·김혜진, 2013)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타났다. 정책대상 연구는 2012년 ‘일·가정양립지원 정책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연구’, 2013년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4)2016년-2020년에는 기혼남성·여성 9편, 기혼여성 8편, 기혼남성 8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남성·여성 4편, 특정직업군 4편, 미혼여성 2편, 미혼남성·여성 1편, 남성 1편이다. 2016년 이전에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6년 이후부터는 기혼 남성·여성 모두를 포함한 연구와 맞벌이 부부(정서린·장윤옥, 2017; 김정미·계선자, 2018; 강수경 외, 2018a; 권소영·이재림, 2019; 박주희, 2019)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연구되었다. 이외 특정 직책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의 근로자(송유미·이선



〈그림 2〉 연구대상(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른 전체 현황

자, 2016), 보육교사(이주연·최지훈, 2019), 가족친화지원센터 직원(강복정, 2018)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직업군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연구들과 연령을 지칭하는 중년 남성과 여성의 가족 갈등(김동훈·기쁘다, 2020)을 다룬 연구들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인다. (5)2021-2022년에는 기혼남성·여성 4편, 기혼여성 4편(박인숙, 2022; 박정민·김유진·진미정, 2022), 특정직업군 3편, 남성·여성모두 3편, 미혼남성·여성1편이다.

시기별 연구대상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1)~(3) 2000-2015년까지는 기혼 근로자 19편, 결혼여부와 관계없는 근로자 6편, 미혼 근로자 1편으로 기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2016년 이후부터 미혼 남성과 기혼·미혼을 포함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는 일·가정양립 문제가 기혼 여성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혼 남성 근로자 대상의 연구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미혼 남녀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연구도 증가하는 등 연구대상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시기별 연구내용의 분포 경향

(1)2000-200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2편, 일·가정갈등 2편이다. (2)2006-2010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5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1편, 일·가정양립 1편, 일·가정갈등 11편이다. (3)2011-201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5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1편, 일·가정양립 12편, 일·가족갈등 5편, 일·생활균형 3편이다. (4)2016-2020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4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2편, 일·가족양립 9편, 일·가족갈등 19편, 일·생활균형 9편이다. (5)2021-2022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2편,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2편, 일·가족양립 5편, 일·가족갈등 9편, 일·생활균형 5편이다. 연구내용을 정책측면과 현상측면으로 나누어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측면의 연구내용 경향

정책의 연구내용은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과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으로 크게 구분되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0-200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의 연구내용 2편을 포함하며, 정책의 적용(정영금, 2002)과 선진국의 정책비교를 통한 연구(정영금, 2004)를 주제로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이 가족균형에 미치는 기대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

(2)2006-2010년에는 정책대안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 기업측면에서 가족지원체계의 지원이 필요하고(정영금·김희형, 2009), 취업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완정, 2009). 근로자의 가족친화정책의

인식 및 실태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산전휴가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탄력근무, 보육지원에 대한 이해가 낮고 휴직으로 인한 인력배치가 어려운 경우 퇴직 권유와 동료의 업무량 부담으로 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주영, 2008). 정책의 세부내용을 평가하면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지원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을 평가하는 연구(정영금, 2008)를 통해 일·가정양립정책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기업의 가족친화정책과 관련한 연구로는 기혼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숙·유계숙, 2007). 이외에도 정영금(2008)은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2011-2015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한 연구내용을 다룬 학술논문 2편(홍승아, 2012, 한영선·정영금, 2014)에서는 일·가정양립 관점에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홍승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유연근무제 활용은 근로자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며,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분업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근무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유연근무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전반을 분석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은정(2012)은 정책분석을 통해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목표의 불분명한 체계와 정책 대상의 선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혜림(2013)은 남성의 일·가정양립실태를 통해 남성근로자들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며,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기업측면에서 가족친화정책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정영금 외(2013)는 가족친화사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시행현황과 개선방안(유연근무제, 아버지 할당제, 가족휴가, 수도권 전지역 FFSC 설립, 컨설팅사업의 다양화, 가족친화인증 사업 확대)을 제시하였다.

(4)2016-2020년에는 국가의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에서는 정책 만족도의 영향과 일·가정양립정책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 육아휴직의무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타났다. 박주희(2017)는 결혼지원정책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혼남녀는 신혼부부주택마련, 결혼용자제도, 기업의 가족문화, 비정규직문제 개선, 가족지원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보험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강복정(2018)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평가와 정책방향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센터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효과적인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시스템구축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새은 외(2019)는 1개 기업의 남성의 육아휴직의무제 경험과 관련하여 사례연구를 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의무제를 통해 남성근로자는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과 가정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고 하였다.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측면에서 권안나(2019)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족친화관련 법정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가족친화인증관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 및 기관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승주와 문승현(2017)은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을 통해 제도와 직장여성들의 인식정도가 첫 자녀 출산 의사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제도의 보편적인 확산,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근로시간단축 및 직장안정성 보장 등을 함의로 제시한다.

(5)2021-2022년에는 유연근무제 경험과 일·가정양립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규량, 2021; 손여정, 2022). 먼저 김규량(2021)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 사회, 정책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손여정(2022)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로가 확산되며, 재택근무제가 근로자의 행복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측면에서의 가족친화경영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승윤과 이유리(2021)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수준을 파악하고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하라(2021)는 기혼여성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정책관련 연구내용의 연구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적 사회제도로서의 정책연구의 흐름은 2000년대 초반 정책도입의 필요성, 비교분석, 적용연구에서 2000년대 후반 일·가정양립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며, 기존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점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후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유형 중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과 같은 특정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시행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정책시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평과와 같은 연구도 나타났다.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정책 측면에서는 2007년 가족친화제도이용에 미치는 현황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정책 추진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의 효과와 기업관리자의 운영인식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2) 현상측면의 연구내용 경향

현상의 연구내용은 일·가정양립, 일·가정갈등, 일·생활균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시기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0-2005년에는 일·가정갈등 현상 측면에서 기혼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기혼취업여성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영금, 2005). 이 외에도 가족기업종사자의 일·가족갈등현상(김영선·옥선화, 2005)과 가족친화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가족친화정책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통해 각종 기업 사례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정영금, 2004).

(2)2006-2010년에는 일·가정갈등 측면에서 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 감소를 위해 자녀돌봄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이완정, 2009). 이 외에 일·가정갈등 측면에서 성역할태도 및 역할갈등(이슬기 외, 2007; 한지숙 외, 2007; 마경희, 2008; 김주현·문영주, 2010)과 관련된 연구내용이 나타났다. 이슬기 외(2007)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지숙과 유계숙(2007)은 여전히 자녀양육으로 일·가정갈등이 유발될 경우 여성이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고정화된 성역할태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경희(2008), 김주현과 문영주(2010)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가정갈등 현상과 관련하여, 부부간 노동의 분배 방식, 성역할태도, 결혼생활만족, 일 만족 등의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3)2011-2015년에는 일·가정양립 현상과 관련해서,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소남(2011)은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가족구성원의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수진과 이기영(2011)은 일·가정양립 태도와 환경이 양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관련 가족정책들이 가족의 질적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립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소영 외(2011)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기업, 정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통해 양립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양정선(2015), 한영선과 이연숙(2015)은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미혼남녀들이 본 일·가정양립의 필요조건과 관련된 연구(김선미·구혜령·이승미, 2013)와 일·가정양립의 실태와 관련하여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조성이 필요성과 일·가정양립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송혜림, 2012; 김소영 외, 2011, 채화영·이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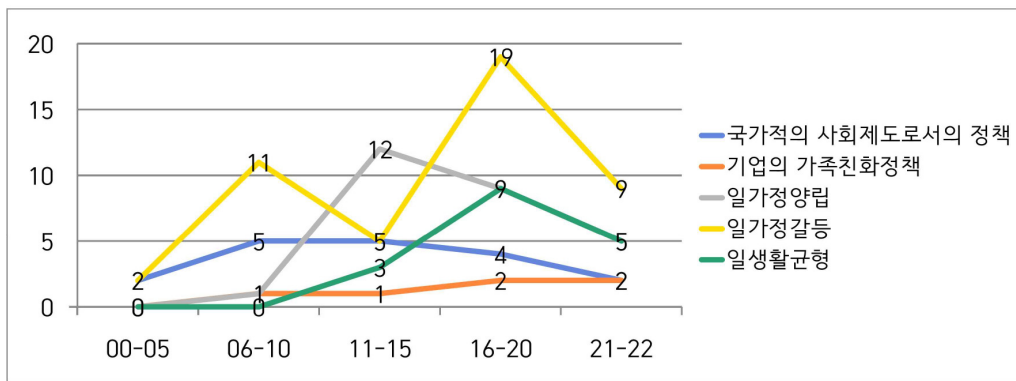
2013).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는 정책과 제도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었지만, 제도의 이행이 부족하고 보육시설의 접근성, 다양한 돌봄서비스,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등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송혜림·유아랑, 2013). 일·가족갈등과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일·가정갈등을 경험하는 관련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김경화, 2013; 한영선·정영금, 2014; 박주희, 2015). 김경화(2013)는 미취학자녀를 둔 남녀 취업자들의 일·가족갈등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자녀양육부담이 갈등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선과 정영금(2014)은 유연근무제도가 기혼여성의 가족 내 갈등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박주희(2015)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및 직장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는 정영금(2011)은 일·생활균형을 위해서 취업모의 경력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박정열·손영미, 2014; 김주희·이기영, 2015)도 있다.

(4)2016-2020년에는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박민정(2019)은 근로자의 직무동기에 일·가정양립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아와 김선미(2019)는 아버지들의 일·가정양립에는 근무시간의 영향이 가장 크며,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도사용을 기피하거나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는 직장 내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김경미·계선자, 2018)의 관계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행복에 일·가정양립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위해 가족친화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과 출산과 관련해서 이승주와 문승현(2017)은 기혼여성의 출산의사와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출산의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영 외(2020)의 연구에서도 일·가정양립의 실제와 직장에서의 경험이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노유영과 임춘희(2017)는 일·가정양립 스트레스가 미혼여성의 결혼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 뿐 아니라 미혼여성들 또한 직장 내 일·가정양립환경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의 갈등과 관련해서 일·가족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박봉선·엄명용, 2016),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일·가정갈등(김소영, 2017; 김소영, 2018; 박주희, 2018), 일·가정갈등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강명수·류은진·이수경, 2019), 일·가정갈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김희주·김지혜·장연진, 2020),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소희·김성희, 2019) 등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외

에도 일·가정갈등과 성역할태도(강수경 외, 2018a; 김재희 외, 2018; 한혜림·이지민, 2018), 직장문화(강수경 외, 2018b; 김재희 외, 2018; 박주희, 2020), 일중독과 가족관계 만족도(엄세원·이재림, 2018)와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갈등(박민정, 2020)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는 김선미, 구혜령과 이승미(2016)는 질적분석을 통해 신입사원의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유연한 근무조건이 요구됨을 밝혔다. 권소영과 이재림(2019)은 맞벌이 부부의 근로형태와 일과 삶의 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족정책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다. 정서린과 장윤옥(2017)은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균형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가족갈등과 일·생활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종수 외(2015)는 비영리기관 종사자의 일·생활균형이 이직의도와 의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5)2021-2022년에는 일·가정양립 경험(정영희·김현주, 2022; 최보윤 외, 2022; 최성희·김연화·오윤자, 2022)과 관련하여 대상과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정기업(IT분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양립경험의 질적연구(정영희·김현주, 2022),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일 가정양립의 변화(최보윤 외, 2022; 최성희 외, 2022), 세대별 가사노동의 시간 변화(서지원·기은강·고선강, 2021) 등의 다양한 연구가 나타났다. 일·가정양립갈등과 관련해서 양은선과 김연하(2021), 이운경(2021), 방지원 외(2022), 박정민 외(2022)의 연구가 나타났다. 방지원 외(2022)는 일·가정양립이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운경(2021)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 손연정(2022)은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택근무자가 비 재택근무자에 비해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권안나(2021)는 취업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여가유형에 따라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자원을 분석하였다. 전지원(2022)은 직장인의 균형적 시간관이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직장인들의 일·여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상관련 연구내용의 연구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고정화된 성역할에 따른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현상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기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기혼 여성 뿐 아니라 기혼남성, 맞벌이부부의 일·가정양립과 일·가정갈등으로 확대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나



〈그림 3〉 연구내용에 따른 현황

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며, 일·가정양립의 인식, 태도, 실태, 경험 등 다양한 연구 내용이 나타났다. 이후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연구’,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 갈등이 기혼여성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일·가정양립과 다양한 변인(행복감, 건강, 결혼, 출산 등)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실태와 시행이 결혼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변화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첫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시기에 따른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는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저출산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시기별 연구논문의 분포현황은 (1)2000-2005년 4편(4.3%), (2)2006-2010년 13편(14.0%), (3)2011-2015년 23편(24.7%), (4)2016-2020년 37편(39.8%), (5)2021-2022년 16편(17.2%)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8편의 연구가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연구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및 제도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자 사회적 화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연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 도입이 미흡한 (1)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적용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2)2006-2010년에는 근

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등을 활용한 2차 자료 분석방법이 다수 사용되었다. (3)2011-2015년 이후에는 연구자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양소남, 2011; 김소영 외, 2011; 홍승아, 2012; 송혜림, 2013; 김선미 외, 2013; 채화영·이기영, 2011; 안소희·최정숙, 2014)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가정양립의 실태, 경험, 조건 등과 관련하여 양적연구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개별 또는 집단인터뷰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4)2016-2020년에는 질적연구 방법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일·가정양립 현상과 특정 변인의 영향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양적연구의 설문조사방법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에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각기 다르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양적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성 보안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질적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셋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2000년대 초 기혼여성 중심의 연구를 시작으로, 남성·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최근 2021년과 2022년에는 여성 대상의 연구(4편)보다 남성·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9편)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성역할의 가치관 변화 등의 시대적 변화들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양립경험과 미혼남녀의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의 연구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특정직업군(여성관리자, IT분야근로자)과 다양한 근무상황조건을 반영하여 특정 연구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보아, 직업군과 기업의유형에 따라 일·가정양립관련 현상의 영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전 일반적인 기혼근로자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대상의 직업, 직책을 구분하여 연구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일·가정양립의 특성을 연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일·가정양립 관련 만족도가 높은 직업 및 직책을 가진 근로자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가진 직업과 직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다양화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생활균형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내용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의 연구내용은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정책지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시기별로 보면 근로자의 인식, 실태, 경험과 같은 연구내용은 중복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직장환경과 여건에 따라 제공 받는 일·가정양립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본격적인 일·가정양립 관련 학술논문은 (3)2011-2015년이후 연구내용의 다양화와 현상연구 중 일·가정양립 주제의 비중이 증가한 특징이 드러난다. 이는 정책적 함의 보다는 실제 일·가정양립 현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인식과 어려움을 알아보고, 가족친화제도 중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에서의 시행여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2016-2020년에는 여성의 휴직 후 복귀를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여러 제도의 활용 경험, 직장문화 등과 관련한 연구내용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이 외에도 근로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근로형태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정도가 기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일·가정양립지원이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 시행의 어려움은 일·가정양립 실태보고서와 학술연구(김선미 외, 2013; 정영금 외, 2013)에서도 증면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제도의 도입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조직의 분위기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송혜림, 2012; 채화영·이기영, 2013). (4)2016-2020년에는 일·가정양립 관련 가장 많은 수의 학술논문이 등재된 시기로 일·가정양립을 기혼여성, 기혼남녀,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과 일·생활균형 지원(김선미 외, 2016; 박주희, 2017)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연구의 목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5)2021-2022년에는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방지원 외, 2022; 이운경, 2021)와 관련된 연구내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근무환경 조건, 근무형태(재택근무, 유연근무제)에 따른 영향(손연정,

2022), 코로나상황의 영향(최보운 외, 2022; 최성희 외, 2022), 특정가구(1인가구)관련(권안나, 2021), 근로자의 행복감(권안나, 2021; 전지원, 2022)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내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시기별 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의 일·가정양립 및 일·생활균형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며, 대상의 직업, 직책, 가족구성원 여부에 맞는 요구들에 대한 연구의 증가로, 대상별 요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이 증진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1) 강명수·류은진·이수경(2019). 중년 직장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31(3), 110-138. DOI : 10.21478/family.31.3.201909.004.
- 2) 강복정(2018).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평가와 정책 방향- 초점집단면접.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3(1), 119-140. DOI : 10.13049/kfwa.2018.23.1.7.
- 3) 강수경·김해미·정미라(2018a). 임신기 맞벌이 부부의 성 역할태도가 일·가정갈등을 통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3(3), 441-462 DOI : 10.13049/kfwa.2018.23.3.3.
- 4) 강수경·정미라·김해미(2018b). 임신기 아버지의 가족 친화적 직장조직문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갈등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3(1), 1-20. DOI : 10.13049/kfwa.2018.23.1.1.
- 5) 강하라(2021). 기혼여성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운영인식과 후속출산 계획 간의 관계: 가족 친화적 상사지원 인식 및 일·가정양립갈등의 매개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25-39. DOI : 10.22626/jkfma.2021.25.2.003.
- 6) 고용노동부(2022). 2021년 일·가정양립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8) 권소영·이재림(2019). 맞벌이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생활균형: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1-25. DOI : 10.7466/JKHMA.2019.37.4.1.
- 9) 권안나(2019). 울산지역 근로자의 '쉽' 있는 삶을 위한 가족 친화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가족친화인증기업(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1), 83-97. DOI : 10.22626/jkfma.2019.23.1.005.
- 10) 권안나(2021). 1인가구의 일·여가유형에 따른 행복수준.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1), 83-97. DOI : 10.22626/jkfma.2021.25.4.002.

- 11) 기은광(2016).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3), 45-65.
- 12) 김경미·계선자(2018).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03-119. DOI : 10.7466/JKHMA.2018.36.4.103.
- 13) 김경화(2013).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갈등인식. 한국가족학회지, 23(4), 60-90.
- 14) 김규량(2021). 유연근무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1-14. DOI : 10.22626/jkfma.2021.25.4.001.
- 15) 김동훈·기쁘다(2020). 중년기 일과 가정사이의 갈등 그리고 일에서의 소진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소속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111-125. DOI : 10.7466/JKHMA.2020.38.1.111.
- 16) 김선미·구혜령·이승미(2016). 외국계 IT기업 남녀 신입 사원의 생애 전환기일-생활 균형 기획.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75-98.
- 17) 김선미·구혜령·이승미(2013). 미혼 남·녀 근로자가 보는 맞벌이가정의 심상과 일·가정 양립조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45-164. DOI : 10.7466/JKHMA.2013.31.4.145.
- 18) 김성희(2009). 일-가정 양립 실태와 사회적 지원의 방향성 비교: 가족친화적이었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1-16.
- 19) 김소영·김선미·이기영(2011).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93-116.
- 20) 김소영(2017).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5(4), 157-172. DOI : 10.7466/JKHMA.2017.35.4.157.
- 21) 김소영(2018). 가족, 일, 지역사회의 자원과 유자녀취업여성 경험하는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과 촉진. 대한가정학회지, 56(1), 55-69. DOI : 10.6115/fer.2018.004.
- 22) 김영선·옥선화(2005). 가족기업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223-239.
- 23) 김유경·구혜령(2016a).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갈등과 일-가정향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99-117.
- 24) 김유경, 구혜령(2016b). 일-가정 균형의 개념과 일-가정 갈등 및 향상과의 관계. 한국가족학회지, 28(3), 1-31.
- 25) 김유리·김은정(2016). 돌봄시간지원정책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28(1), 94-125.
- 26) 김은정(2012). 일가정양립지원정책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24(3), 131-160.
- 27) 김은정(2013).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25(2), 168-198.
- 28) 김재희·이희선·박성혜(2018).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와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직장-가정 간의 양방향적 전이: 기관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3(2), 193-213. DOI : 10.13049/kfwa.2018.23.2.3.
- 29) 김정숙·이은형(2019). 예비유아교사의 학교현장실습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지, 24(2), 189-210. DOI : 10.20437/KOAECE24-2-08.
- 30) 김주현·문영주(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결혼 생활만족과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31) 김주희·이기영(2015). 맞벌이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본 일-생활유형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01-125.
- 32) 김희주·김지혜·장연진(2020). 근로환경과 일·가정양립갈등이 기혼여성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67(1), 5-33.
- 33) 노유영·임춘희(2017). 미혼 여성의 결혼친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아실현욕구, 부모의존,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2), 71-97. DOI : 10.21321/jfr.22.2.71.
- 34)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35) 마경희(2008). 맞벌이가구 젠더체제유형과 여성의 일-삶경험의 차이. 한국가족학회지, 20(1), 131-160.
- 36) 문영주(2013).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연구-일-가족양립의 긍정적전이, 비대칭성, 차별적 기능검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81-102.
- 37) 박민정(2019). 일·가정생활우선도와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근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성별차이를 보이는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43-74. DOI : 10.22626/jkfma.2019.23.3.003.
- 38) 박민정(2020). 취업모의 일의 의미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상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4), 39-57. DOI : 10.22626/jkfma.2020.24.4.003.
- 39) 박봉선·엄명용(2016). 취업모의 직장-가정 역할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54, 7-39.
- 40) 박성옥·김성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5), 12-25.
- 41) 박인숙(2022). 생태학적관점에 기반한 유자녀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갈등 및 촉진의 다양한 관련 변인: 차별적 현저성과 상대적 현저성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0(4), 35-58. DOI : 10.7466/JFBL.2022.40.4.35.
- 42) 박정민·김유진·진미정(2022).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의 중년적 변화와 영향요인. 가정

- 과삶의질연구, 40(4), 119-131. DOI : 10.7466/JFBL.2022.40.4.119.
- 43) 박정열·손영미(2014).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화: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75-102.
- 44)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역할갈등, 배우자지 지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41-62.
- 45) 박주희(2017).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및 수도권 결혼적령기 취업미혼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5. DOI : 10.22626/jkfrma.2017.21.4.001.
- 46) 박주희(2018).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지 지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조절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43-59. DOI : 10.22626/jkfrma.2018.22.3.003.
- 47) 박주희(2019). 맞벌이 기혼남녀의 일·가정갈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23-39. DOI : 10.22626/jkfrma.2019.23.4.002.
- 48) 박주희(2020). 가족주의 가치관, 직장지지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63-81. DOI : 10.21321/jfr.25.2.63.
- 49) 박하영·주수산나·김종우·송시영(2020). 나의 미래, 나의 선택: 정규직 미혼여성의 직장경험을 통해 본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한국가족학회지, 32(3), 79-107. DOI : 10.21478/family.32.3.202009.003.
- 50) 방지원·최보윤·유성경·김수영(202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혼 만족에 의해 조절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3), 55-73. DOI : 10.7466/JFBL.2022.40.3.55.
- 51) 서중수·이미영·정병일·김영란·정미란(2015). 비영리기관 종사자의 일·생활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57-74.
- 52) 서지원·기은강·고선강(2021). 한국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가정관리 및가족돌봄시간을 중심으로(1999-2019).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2), 53-78. DOI : 10.22626/jkfrma.2021.25.2.005.
- 53) 성혜영(2010). 연장근로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와 일가족갈등: 초등학교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79-87.
- 54) 손서희·이재림(2014).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중단의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57-177.
- 55) 손연정(2022).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코로나19이후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37-51. DOI : 10.22626/jkfrma.2022.26.2.003.
- 56) 손주영(2008).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정책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81-101.
- 57) 송유미·이선자(2016). 사회복지기관 기혼 여성 사회복지사의 배우자와의 역할분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66(4), 317-340. DOI : 10.16975/kjfs.2016.52.013.
- 58) 송혜림(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혼취업여성대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17.
- 59)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60) 송혜림(2013).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해 본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한 연구: 학령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4), 101-125.
- 61) 송혜림·유아량(2013).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해 본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한 연구: 학령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4), 101-125.
- 62) 송혜림·강은주(2021). 취업1인 가구의 일·생활균형: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55-70. DOI : 10.22626/jkfrma.2021.25.4.005.
- 63) 안소희·최정숙(2014). 유자녀 건강가정사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45, 65-94. DOI : 10.16975/kjfs.2014.45.003.
- 64) 양소남(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 19(1), 103-126. DOI : 10.21479/kaft.2011.19.1.103.
- 65) 양은선·김연하(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일·가정양립갈등이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3), 1-14.
- 66) 양정선(2015). 취업주부의 일, 가정 양립 및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0(4), 613-630.
- 67) 엄세원·이재림(2018). 한국근로자의 일중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1-23. DOI : 10.7466/JKHMA.2018.36.1.1.
- 68) 유재연(2016).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일저녁 가족공유시간 영향요인: 요일별 퇴근시간, 귀가시간, 통근시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28(3), 32-59.
- 69) 윤소영·김혜진(2013). 맞벌이 기혼남성의 일·가정균형의 주관적 인식 및 갈등정도와 가정의 건강성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9-35.
- 70) 이소희·김성희(2019).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75-95. DOI

- : 10.22626/jkfrma.2019.23.4.005.
- 71) 이승기·전귀연·김수경(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의 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 72) 이승윤·이유리(2021).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경영 성과 및 사후지원 효과-기업성과와 사회적성과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17-30. DOI : 10.22626/jkfrma.2021.25.3.002.
 - 73) 이승주·문승현(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분석.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55, 129-155. DOI : 10.16975/kjfs.2017.55.005.
 - 74) 이완정(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 75) 이운경(2021).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양육갈등과 가족공동체활동간의 관계: 우울,부부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3), 35-51.
 - 76) 이주연·최지훈(2019). 보육교사의 일·생활균형,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소진과 영유아 학대인식 간의 구조적관계: 혼인여부에 따른 집단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81-197. DOI : 10.7466/JKHMA.2019.37.3.181.
 - 77) 이현아·김선미(2019). 아버지의 일·가정양립유형과 일·가정양립양상.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75-88. DOI : 10.22626/jkfrma.2019.23.3.004.
 - 78) 전지원(2022). 직장인의 균형적시간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일-여가갈등과 일-여가촉진의 병렬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40(3), 87-105. DOI : 10.7466/JFBL.2022.40.3.87.
 - 79) 정민선·서진희·최연실(2022). 인지행동치료의 최근 동향과 부부·가족치료적 함의-수용-전념치료(ACT)와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IBCT)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Couple and Family Therapeutic Implications - Focusing on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and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0(1), 69-91. DOI : 10.21479/kaft.2022.30.1.69.
 - 80) 정서린·장윤옥(2017).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지지, 직장 지지 및 일-가족 전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3), 97-119. DOI : 10.22626/jkfrma.2017.21.3.006.
 - 81) 정영금(2002).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40(11), 107-118.
 - 82) 정영금(2004). 가족친화적정책을 통한 일-가족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91-100.
 - 83) 정영금(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3-122.
 - 84)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관점에서본 일-가정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85) 정영금·김희형(2009).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지원체계와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6), 109-120.
 - 86) 정영금(2011). 일생에 걸친 경력관리를 통한 일-생활균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41-53.
 - 87) 정영금·조성은·안재희·김지수(2013).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시행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83-96. DOI : 10.7466/JKHMA.2013.31.4.083.
 - 88) 정영희·김현주(2022). IT분야 여성중간관리자의 일-가정양립경험에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69(2), 89-136. DOI : 10.16975/kjfs.69.2.4.
 - 89) 조수진·이기영(2011). 일, 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6), 23-37.
 - 90)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91) 채화영·이기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양립 경험. 대한가정학회지, 51(5), 497-511. DOI : 10.6115/fer.2013.51.5.497.
 - 92) 최보윤·김수영·방지원·유성경(2022). 코로나19 전후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경험 변화와 부부 우울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3-32. DOI : 10.21321/jfr.27.1.3.
 - 93) 최빛내·최우정·최연실(2018). 커플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국내 상담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 Trends in Couple-Therapy Research in Domestic-Counseling Journals.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6(2), 301-320. DOI : 10.21479/kaft.2018.26.2.301.
 - 94) 최성희·김연하·오윤자(2022). 코로나-19시기 맞벌이 여성이 지각한 스마트워크유용성과 테크노스트레스가 일·가정갈등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부담공평인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지, 27(2), 175-197.
 - 95) 최새은·정은희·최슬기(2019). 남성육아휴직의 무제를 통한 아빠노동자 탄생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학회지, 31(4), 1-29. DOI : 10.21478/family.31.4.201912.001.
 - 96) 통계청(2019).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 97) 한영선·정영금(2014). 유연근무제도가 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 및 촉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1-26.
 - 98) 한영선·이연숙(2015). 여성취업과 일,가정양립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3(1), 49-66. DOI :

- 10.6115/fer.2015.004.
- 99) 한지숙·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지향성이 일-가족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100) 한혜림·이지민(2018). 기혼 여성의 성역할태도, 일·가정양립,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의 매개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6(5), 425-433.
- 101) 홍성남·성미애(2010). 기혼남성 우편집배직공무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8(1), 1-10.
- 102) 홍승아(2012)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 전략적 선택인가, 젠더합정인가?. 한국가족학회지, 24(4), 135-165. DOI : 10.21478/family.24.4.201212.005.
- 103) Grzywacz, J. G. & Carlson, D. S. (2007). Conceptualizing work-family balanc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4), 455-471.

- 투 고 일 : 2022년 12월 15일
- 심 사 일 : 2023년 01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23년 05월 19일